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0년 11월 1일 (제1069호)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참견하지 말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느 장로에게 내가 속이 상해서 한 말이다. 성경에는 분명히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잠26:17)고 하셨다. 내 집에서 기르는 개도 귀를 잡아당기면 무는데, 남의 집 개야 오죽하겠는가. 남의 일에 끼어들어 참견하는 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벧전 4:15)라고 경고한 바 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길에서 명석을 깔아놓고 바둑을 두면 약방의 감초처럼 꼭 끼어드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이쪽에 이렇게 두라, 저쪽에 저렇게 두라 훈수하다가 결국 이쪽저쪽에서 욕을 한 사발 먹고야 퇴장하기 일쑤였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자기 형에게 자기에게도 재산을 나누어주라고 말 좀 해달라고 했다. 물론 그 일은 예수님의 지혜와 역량으로 얼마든지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눅12:14)라고 말씀하시며, 남의 일에 확실히 선을 그으셨다.

나도 교단의 목회자들에게 부부 문제나 금전적인 문제에는 절대 끼어들지 말라고 한다. 진짜 개에게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유경험자다. 예전에 호기롭게 남의 빚을 “내가 해결할게.”라고 말했다가 독박을 쓴 적이 있다. 남의 일에 끼어든 비싼 대가였다.

‘오지랖도 넓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다.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한다는 뜻이다. 이 말 뒤에 꼭 나오는 말은 ‘네 일이나 잘해라.’이다. 맞다. 남의 일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하지 말고, 내 일에 전념하고, 내 갈 길을 부지런히 가자. 남을 돕는 것과 참견하는 것은 다르다. 빈둥빈둥 놀며 남의 일에 끼어드는 자가 되지 말고, 부지런히 내 것을 이룬 후에 남을 돕는 멋진 사람이 되자.

복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지난 수요일저녁예배에서 목사님이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을 말하라면 바로 이 말씀이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살전2:13). 곧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란 말씀이다.

“내 목회 36년 세월에 거듭 강조하지만,

만나면 고침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서 그를 영접하기는 커녕 사환을 보내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고만 합니다. 무시 받았다고 생각한 나아만 장군은 대노하여 떠나려했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달려 나와 설득합니다. ‘문둥병만 낫는다면 더 큰 일도 마다했겠나이까? 더구나 단지 물에 들어가 씻으라는 것뿐인데 밀려야 본전 아닙니까?’ 이에 나아만은 생각을 바꿔 엘리사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갔더니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

사였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위임하신 것입니다. 또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습니다(마10:1). 어디 그뿐입니까? 너희 말을 듣지 않걸랑 먼지를 털어버리라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는 소돔과 고모랑 땅에 내린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을 당한다는 경고입니다(마10:14~15).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 베드로를 속였다가 죽음을 면치 못한 사건이 나옵니다(행5:1~11). 이런 사건들을 찾자면 성경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



목사님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멕시코 메리다 집회 광경)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단 한 가지 못하시는 게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의 중심을 본다,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시작할 때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 왕의 군대장관이요 당대 영웅이지만 문둥병에 걸려있었습니다. 소국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인물을

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일어난 역사였습니다(왕하5:1~14).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당부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양들을 완전히 위임하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

가지구를 150바퀴 이상 돌며 전 세계에 나가 집회할 때 나타난 성령의 역사 또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주의 종 목사의 말을 무시합니까? 그러고도 잘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거지요. 분명히 말하는데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지 성도들의 종이 아닙니다. 주의 종에게 대적했다가 저주를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경에 복 받은 인물들처럼 주의 종 목사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영생에 이르기까지 풍성히 누리실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약1:1~8)

기초공사가 가장 어렵다

와우아파트,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다 순간 무너져서 많은 인명 피해를 낸 것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초공사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자고로 무엇을 하든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 전에 건축업에 종사한 적이 있어서 잘 아는데, 기초공사가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시끄럽고, 가장 힘든 작업입니다. 땅을 파내고, 큰 바위를 파내고, 솟구치는 물을 파내고, 쇠파이프를 박고, 거기에 요즘은 지진을 대비해 내진설계까지 해야 하니 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에서는 ‘기초공사를 마치면 다 끝났다’고들 합니다. 그러니 초고층 건물이면 어떻겠습니까? 더 오래하고, 더 요란하고, 더 힘들 겁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높이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기초공사만 마치면 오뉴월 대나무 자라듯 쪽쪽 위로 올라가게 되지요.

어디 건축업만 기초가 중요한가요? 공부도 기초가 중요하고, 운동을 해도 기초체력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에도 영혼이 잘 되는 기초가 있어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창수가 나고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기초가 반석처럼 든든하고 탄탄해야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넘어지지 않지요. 그것이 힘들다고 대충하면 부실공사요, 부실기업이요, 부실한 체력이요, 기초가 없는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지요(마7:25~26).

많이 넘어진 자는 쉽게 일어난다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데도 그렇습니다. 힘든 기초공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높이 오르고,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고난이라 하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주지도 않으십니다(약1:13). 하나님은 다만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세계 제일 높은 건물처럼 세계 제일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처럼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인데, 사람들이 ‘힘들다, 못 살겠다, 죽고 싶다,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정말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기초공사가 힘들다고 푸념을 늘어 버리는 일과 일반입니다. 그럼 평생 좋은 건물은 못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1:2~4). 당신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온전하게 하여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작업하시는 중이요, 환난의 바람이 부는 것은 부실한 것과 과실을 떨어뜨리고 극상품을 만드시려는 계획 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목적 없이

훈련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조금만 훈련

하면 최고의 인물이 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갖고 두르면 명품인생이 될 것 같으니까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사람이 바로 욕입니다. 욕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치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정말 그러고도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산이 날아가고, 자녀가 다 죽고, 자기 몸에 욕창이 나고, 아내가 저주하며 떠나고... 그런 와중에 그가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욥23:10). 욕은 시련이 끝날 때에 용광로에서 연단 받은 금처럼 자신은 깨끗하고 순결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심판대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확신대로 하나님은 시련을 통과한 욕에게 예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용광로를 통과해야 불순물이 없어져 정금이 됩니다. 정금이 될 때 값어치가

있고, 세계 어디서든 통용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5:3~4). 모세는 40년의 훈련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야곱은 2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금의환향했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그리고 저도 십 수 년의 훈련을 받고 나서 세상에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니까? 많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며 울고 있습니까? 그러나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당신은 지금 기초공사 중입니다. 높이 올리시려고, 더 크게 하시려고, 명품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기초공사를 아주 단단히 하는 중입니다. 물론 힘들겠지요. 그 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2~13)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초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 하신 일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그분의 일생은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절규에 가까운 기도였습니다(눅22:44). 그렇게 기도하셨기에 그분은 고난을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를 가지

신 것입니다.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지요? 기도도 임계점을 넘어야 응답이 옵니다. 조금 기도해놓고 응답이 안 온다고 하지 말고,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기도를 해보세요. 응답은 꼭 옵니다. 고난 중에 있거든 기도하세요. 야고보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찌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찌니라”(약5:13~14). 또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4:7)고 했습니다. 아침을 기도로 열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지세요.

고난은 멋진 추억담을 만든다

또한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함은 기도해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고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히1:14).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사자의 입을 막았던 것,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게 보호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령을 받은 천사였습니다. 제 아들이 어릴 때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이 다니는 통로로 떨어졌는데, 천사가 들어 올려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날 성령이 갑자기 방언기도를 많이 시키셨던 것이 생 각납니다. 그 기도가 천사를 움직여 아들을 위험에서 건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것은 마치 해산의 고통을 받던 여인이 순산하여 자녀를 가슴에 안은 기쁨에 비교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고난 받는 날이 있습니까? 곧 응답받는 날이 옵니다. 훈련받는 날이 있으면 영광의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사에 다 때가 있고, 범사를 이를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전3:1~8).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여 고난을 이깁시다. 기초공사가 끝나면 빌딩은 쪽쪽 올라갑니다.

먼 훗날, 당신은 그날을 회고하며 ‘그날이 있어서 오늘이 있다’고 웃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고난은 멋진 추억담을 만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후대에게 광야의 세월을 추억하듯이 말입니다. 그날은 곧 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8:18). 할렐루야!

:: 객원컬럼 ::

거북이 신앙과 토끼 신앙

신앙생활은 평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북이처럼 매일매일 꾸준히 걸어가야 한다. 토끼처럼 신나게 뛰다가 잠들면 안 된다. 주변에서 엄청 충만한 것처럼 오버해서 뛰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웬지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다 시험에 떨어져 나가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여럿 보았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다.

평소에 적당히 하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금식하고 새벽기도 하며 법석 떠는 것보다 평소에 하던 대로 꾸준히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소나기 기도를 시작해도 텅 빈 기도 항아리를 다 채우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 응답이 더디고 안 온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다. 평소에 늘 가득 채워놓으면 조금만 더 해도 차고 넘쳐 기적의 응답을 속히 맞볼 수 있는 것이다. 히스기야가 갑자기 죽을병에 걸렸을 때 그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께 꾸준히 잘해왔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한 것이다. ‘평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상을 척결하고 산당을 깨뜨리고 제사를 회복한 것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통곡한 것이다.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셨다. 이 병으로 죽을 것이니 유언하라 한 이사야 선지자가 궁궐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응답하셨다. 바로 그거

다. 평소에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평소에 늘 깨어서 기도하여 기도 항아리를 찰랑찰랑 채우며 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잠언 1장 24절에서 30절에도 하나님께서 평소에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 받지 않는 자들이 재앙을 만날 때에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비웃으리라고 하셨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에녹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평소에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주께서 오라 하시는 날 후회하지 말아야 한다.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고 감사하며 가야 한다. 지금 하자. 오늘이 기회다. 거북이처럼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괴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5~18). 이 말씀은 평소에 잘하라는 말씀이다. 평상시에 감사하고, 평상시에 기뻐하고, 평상시에 기도하며 사는 것이 우릴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시대 목사

:: 세상을 보는 창 ::

마시멜로의 전쟁

한 심리학자가 유치원생 600명에게 실험을 했다. 자기 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먹지 않으면 하나를 더 주거나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준다는 약속을 하였다.

15분 동안 보여준 아이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당장 그것을 먹는 아이,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아이, 눈앞의 마시멜로를 아예 안 보려고 옆드린 아이, 그것을 잊으려는 듯이 탄성을 부리는 아이들도 있었다. 이 연구의 완성은 먼 훗날에 있었다. 이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추적한 연구는 어릴 때 자제력을 보인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으며, 인간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우수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실험은 “만족지연능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만족지연능력”이란 자신의 만족을 유보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능력을 다른 말로 그 사람의 자제력 또는 의지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시멜로 연구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토록 하였다. 더 높은 성취를 위해 현재의 재미도 있고 아깝기도 한 것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삶의 방식이다.

우리의 삶에도 이 마시멜로의 전쟁은 매일 벌어진다. 마시멜로 전쟁은 아침부터 시작된다. 더 잠을 자고 싶다는 마시멜로와 이 잠에서 일어나야 더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가치가 아침부터 충돌한다. 그냥 편하게 쉬고 싶다는 마시멜로와 훗날 건강을 약속하는 운동도 서로 싸움을 한다. 마시멜로 전쟁은 이처럼 우리 모든 삶 구석구석에서 일어난다. 무엇을 선택해야 옳겠는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마시멜로 전쟁이 있다. 피곤하니까 기도를 건너뛸 것이냐 아니면 무릎 꿇을 것이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성전에 나갈 것이냐?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눈앞의 마시멜로를 찾을 일이 아니다. 만족을 지연시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영적 의지력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시멜로를 취하면 당장 좋지만 금방 후회하고 곧 비참해진다. 영혼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마시멜로를 넘어있는 진정한 가치, 하나님의 원하심을 볼 수 있는 분별력, 눈앞의 마시멜로를 거절하는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내 동반자

생명의 악동과
성장의 발판을 가르쳐준
내 친구 봄이여
고맙소!

무한대 성장과
변화의 환경을 마련해준
내 친구 여름이여
고맙소!

결실의 행복과
이별의 아쉬움을 알게 해준
내 친구 가을이여
고맙소!

아름다운 열매 나눠주고
부활을 꿈꾸며 잠들게 해준
내 친구 겨울이여
참으로 고맙소!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인생 사계절
창조주 섭리를 깨닫게 해준
참 좋은 내 친구
사계절 고맙소!
그동안 수고 많았소!

2020. 10. 23 새벽
봉우 이초석

:: 웅달샘 ::

영적 요요현상

‘부자들 만며느리 같다’는 말이 요즘은 욕입니다. 좋은 말로 통통하고 풍성하다는 말이니깐요. 지금은 날씬해야 먹힙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이어트 열풍이 뜨겁습니다.

문제는 잠시 방심하면 그동안 애쓴 보람도 없이 다시 살이 찌버린다는 겁니다. 잠깐 사이에 다이어트 전의 몸무게를 훌쩍 넘겨 버리기도 합니다. 요요현상,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요요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야 성공합니다.

‘영적 요요현상’, 들어보셨나요? 처음 예수를 믿고 울며 기도하고, 밤새워 말씀 보고, 틈나는 대로 전도도 했었습니다. ‘주를 위해 무엇을 더 할까’ 늘 생각했고, 예배가 늘 그리웠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영적으로 민첩해졌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게 힘들어지고, 주일은 어찌 되었든 교회에 가겠는데 철야까지는 힘듭니다. 시간도 없고요. 말씀 대신 세상적인 책과 교양 찾기에 바쁘니다.

병아리는 팬찮은데 돼지 새끼 십일조는 망설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슬슬 옛 습성, 옛 습관, 옛 성품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예수님 자리를 대신해갑니다. 영적 요요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는 귀신이 나갔다가 비어 있으면 더욱 악한 귀신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영혼에 비탄이 다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요현상을 막으려면 소식(小食)과 운동이 습관화되어야 하듯, 영적 요요현상도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냄비신앙이 아니라 푹배기처럼 꾸준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고 말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엡6:18)라고 한 것입니다.

영적 요요현상은 무섭습니다. 한번 비침을 받은 자들이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히6:4~6). 그러니 내 영에 콜레스테롤이 끼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여 영이 민첩하고 아름답게 합시다.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예수중심편집실

삼위일체 하나님

기독교인 중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신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적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상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삼위일체(three Persons in one Body) 하나님이 누구신가 물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한 몸을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 분 하나님께서 한 몸 안에 계시냐는 질문에는 답변이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류 기독교 삼위일체 신학에서는, 세 분은 각각 구별된 인격(three Persons)의 ‘신’이시며 각각 다른 역할을 하시지만, 하나로 연합되어(unity) 계심을 믿습니다. 터툴리안(Tertullian, AD 155~230?)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세 분 하나님은 한 본질과 상태이시며 능력이 동일하시나(one in substance, condition, and power), 형태와 외관 정도가 다르시다(three in form, aspect, and degree). 세 분 안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세 분은 하나로 연합되어 계시지만(요14:10~11, 16:13~15),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요14:28)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분은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으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하나님의 아들)과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창 1:1~3).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고, 성령님께서 만든 것이 생동하도록 하셨다고 봅니다. 성 바실(AD 330~379)은 하나님 아버지는 창

조물이 존재하도록 하였고, 아들은 창조를 실행했고, 성령님은 그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지만,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 형체도 없고 빈 상태였었습니다. 즉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은 존재를 위한 기초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주의 끝은 물로 되어있다.”고 아인슈타인이 말한 대로, 초기 상태에는 물만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2절 끝에 “하나님의 신(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hovering)”고 나옵니다. 이것은 암탉이 알을 품고 부화하려 할 때, 알을 계속 굴려주면 그 안에서 열이 나고 에너지가 생성되어 병아리로 부화되듯, 성령님께서 우주 수면 위에서 만물이 탄생되도록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차례로 만드셨고, 성령님께서 그 창조된 만물이 생동력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 분 하나님의 사역은 다르셨습니다. 구원 사역 때에도 삼위일체 세 분의 사역이 다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는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시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을 알려주시고, 그 후에 성령님을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잉태되게 하셨습니다(눅1:35). 드디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요1:14).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서, 만민이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 자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을 믿을 때에만, 그 믿는 자의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참 효과가 있게 되

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 분 하나님의 사역이 다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끝난 것도,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실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요14:16)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한다고 모두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요 14:21). 그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할 때, 비로소 구원의 보증을 받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엡1:13~14; 고후1:21~22). 이것을 ‘성령세례’라고 부릅니다(행 1:4~5). 세 분은 하나로 연합되어 분리되실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보좌에 계실 지라도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요14:23). 결론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다른 세 인격이시면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에 성경에서도 미스터리라고 표현합니다(골1:26~27; 2:1~3; 엡3:2~6).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들이 있습니다. 터툴리안은 나무로 설명했습니다. 즉 나무 자체는 하나님 아버지, 나무의 뿌리는 아들 예수님, 나무의 열매는 성령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결국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많은 믿는 자들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분 하나님은 한 분(전지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권문선 선교사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코로나 가운데 건강한 면역 준비하기

건강한 면역은 코로나19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를 침입하고 다른 장기에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일차 관문이 폐를 튼튼하게 해주는 면역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를 튼튼히 하는데 첫 번째, 가벼운 조깅과 유산소 운동입니다. 주님이 주신 몸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게 육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마스크를 꼭 쓰고 해야 하며, 가벼운 산보나 조깅으로 규칙적으로 땀을 내어줌으로써 폐의 순환을 원활히 하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것은 폐의 면역에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폐에 좋은 음식으로는 쉽게 온도 변화에 따라 기침이나 비염이 있는 경우는 건강(말린 생강)차를 마시면 장이

따뜻해지면서 폐도 따뜻해지는 효과로 면역력이 회복됩니다. 평소 노란 가래나 누런 콧물이 종종 생기는 체질의 경우는 도라지 차를 자주 마시면 폐의 노란 가래나 콧물을 제거해주며, 목이 아플 때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라지는 천연 항생제의 효능이 있어서 신체의 어느 부위의 염증이 있을 때도 차로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은행(열매)은 평소 구워서 먹으면 고소하고 맛이 좋은데, 기침을 줄여주고 대변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평소 변비가 있는 체질로 기침이 지속될 때 은행(열매)를 간식으로 먹으면 면역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코로나에 감염이 되거나 증상이 의심될 때 대한한의사협회 코로나 전담팀(1668-1075)으로 연락하면 증상에 따른 코로나 면역 한약을 격리 전후에도 무상으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나치게 과로하거나 피곤해서 가벼운 잔기침이 나올 때는 한의원이나 약국에서 경옥고를 2~3주 복용해 주면 폐가 과로로 인하여 건조해서 잘 낫지 않는 기침에 효과가 좋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기침이 잘 낫지 않는 경우 마른기침이라면 경옥고가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가벼운 미열이 있을 때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하며, 감기 양약과 동시에 항방패독산(가벼운 열감기), 갈근탕(몸살과 미열이 있는 감기), 배농산급탕(인후형 감기)등 약국이나 한의원을 병행함으로써 면역을 높이며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작은 실천으로 건강을 지킵시다.

Dr. 설재현 집사
kseolmed@hanmail.net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어릴 적 들던 이 노래를 이제는 아이를 키우며 듣게 된다. ‘어른들은 몰라요’란 제목의 노래를. 과연 어른들만 모를까? 상대방이 겪고 있는 상황과 그 사람의 마음은 당사자와 하나님 외에는 알지 못한다. 간접적으로 귀동냥으로 듣거나 그간 봐와서 머리로는 인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그 심정은 직접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진정 헤아릴 수 없다. 그렇기에 상대방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전해 듣고 보는 것은 단지 일부이고, 그 나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신앙생활과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어느 정도 성경적 지식이 쌓이고, 내 삶에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의 상황과 믿음을 쉽게 판단하는 오류를 범한다. ‘네가 그리하여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이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진단을 내린다. 환자에게는 위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치료를 하는 사람은 담당 의사와 간호사면 충분하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치료를 해대면 그 상태는 더 악화될 뿐이다.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은 치료가 아닌 위로와 격려, 중보 기도를 해줘야 한다. 나날이 갈리는 세상 풍조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서로에게 강박해질 것이다. 이러한 풍조를 저지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상대방을 공감하며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 사도신경에서 말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것은 이 공감대 형성에 달려 있고, 그 공감대 형성은 이 말씀에 담겨있는 듯하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ofriendly

